

# 북한 접경지역 경제사회 현황과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 모색

허정필 동국대학교

## 논문요약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 중 북한의 접경지역 현황을 현재 북한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북한 접경지역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인구, 면적, 범위)과 교통, 기후 및 재해를 확인한 결과, 접경지역은 특징적으로 서부, 중부, 동부로 분류해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첫째, 서부 접경지역이다. 서부 접경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바탕의 경공업, 왕건릉 등 관광업, 배천군의 농업, 연안군이 수산업(연백제염소) 등이 발전하였다. 서부 접경지역은 다른 접경지역보다 발달된 교통인프라 수준과 평양과 근접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이 진행되었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이다. 중부 접경지역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집중적으로 진행중인 세포지구 축산업 정책 발전이 두드러졌다. 세포군-이천군-평강군으로 이어지는 축산업과 목축업은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이다. 동부 접경지역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관광업과 수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내륙지역은 생태산업, 광업 등이 발전하였다. 향후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으로 첫째, 서부 접경지역은 기존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경공업 교류협력과 관광 및 스포츠 산업 교류협력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은 남북 모두 축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축산업과 목축업이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 접경지역 또는 기타 지자체의 투자로 중부 접경지역 내 축산업 기지를 조성하여 남북 공동 관리 또는 북측에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도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은 기존 금강산관광협력 재개를 통한 남북 관광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의 금강산 시찰 이후 금강산 철거를 지시하고 북한식 개발계획을 제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간 관광협력 사업이 재개되어야 활성화 가능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미국 및 UN안보리 설득 등이 필요하다.

주제어 : 남한, 북한, 접경지역, DMZ 남북교류협력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 중 북한의 접경지역 현황을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 남북 접경지역 경제사회 분야의 교류협력 가능성 모색이 주목적이다.

남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범위를 규정하고 군사시설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통제보호구역 등으로 지역개발 제한과 민간인을 통제해 왔다. 북한 접경지역은 군사분계선을 잇달아 있는 시군을 ‘분계연선(전연지대, 최전연지대)지역’으로 규정하고 4개의 군단(4, 2, 5, 1 군단)을 배치하여 민간인을 통제하고 있다.

남북한 접경지역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남한 접경지역 현황과 북한 접경지역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남한 접경지역 현황 관련해서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다. 반면에 북한 접경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북한 접경지역 현황을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남한 접경지역 현황에 비해 북한 접경지역 관련 정보는 대외적으로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접경지역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실용적인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한 접경지대(전연지대)의 실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 접경지역(전연지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문헌 고찰연구 방법과 통계자료를 활용, 그리고 구글 및 다음 지도를 활용한다. 첫째,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조선의 오늘, 민주조선, 메아리 등 북한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접경지역 관련 기사와 기상, 재해현황, 산업현황 등 자료를 확인하고 분석한다. 둘째, 통계청의 자료를 확인하여 북한의 인구<sup>1)</sup>, 면적, 범위를 확인하고 주요 기후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 셋째, 구글 및 다음 지도와 문헌자료 교차분석을 통해 2021년 현재 북한 접경지역의 교통인프라 현황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1차 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선행 연구 자료 검토를 통해 주요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남북 접경지역 개념을 비교하여 주요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한다. 본론 II장에서는 북한 접경지역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부, 중부, 동부로 주요 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별 행정(인구, 면적, 범위), 교통, 기후 및 재해를 확인한다. 접경지역의 행정, 교통, 기후 및 재해를 확인하는 이유는 북한의 주요 산업 조성 계획, 개발은 기본적으로 국가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접경지역(전연지대)의 주요 산업은 각 지역별 기반시설과 노동력(인구), 지리적 위치와 교통시설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따라 발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III장에서는 북한 접경지역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발전된 주요 서부, 중부, 동부 산업현황을 확인한다. IV장에서는 남한 접경지역 현황과 접경지역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남한 중심의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방안 모색이 아니라 북한 접경지역 현황과 산업발전 현황에 따른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방안 모색이다. 접경지역 현황 중심연구로 북한 전체 개발계획과 남북협력 사업 정책을 모두 관통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 북한 접경지역의 동향을 파악해 실용적인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접경지역 관련 대표적 선행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 벨트 육성-(행정안전부 2011)”가 있으

1) 북한 인구 자료는 2021년 통계청 추정치가 아닌 2008년 북한이 공개했던 인구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북한사회의 특징으로 거주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의 변화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며, 접경지역 관련 국가의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선행 연구에서는 생태·관광 벨트 육성 전략,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전략, 동서 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전략,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전략,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전략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5대 대표적 전략 목표 중 생태·관광 벨트 육성 관련 목표 일부는 이행이 되었지만, 이외의 대부분의 전략은 사업비 및 자원 조달 지연, 남북관계 변화 등의 정치적 문제 발생 등으로 아직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 벨트 육성-” 연구 이후 경기도, 강원도 등의 각 지자체와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등에서 접경지역 관련 후속연구가 지속되었다. 국토연구원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I (강민조 외 2018)”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여건분석과 추진사업 그리고 해외접경지역 협력사례를 통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종합발전 기본구상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위성사진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생태환경 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내용은 다소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기본구상에서 남북 중심의 개발계획 구상측면이 다소 강하게 느껴진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접경지역 경제·사회·문화구조 분석(강원연구원 2018)” 연구에서 접경지역 현황과 규제현황 그리고 접경지역 민군관계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접경지역 국방개혁 2.0에 따른 접경지역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접경지역 현황과 경제·산업구조 그리고 군 장병이 외출, 외박시 접경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접경지역 현황과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접경지역 관련 민북마을 현황 관련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 변화에 대한 연구”와 “위험한 평화와 공존하기 : 강원도 민통선 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김창환 외 2016)”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민북마을 관련 국내외적 민주화와 경제개발, 탈냉전 등의 요인에 의해 긴

장이 완화되면서 1993년부터 2015년까지 민통선 내 통제보호구역 지정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2021년 5월) 53개의 민북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방안을 위해 한국은행 강원본부 편의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 발안”과 강원발전연구원 편의 “강원도 접경지역의 잠재력 실현 방안 : 철원지역을 중심으로” 등의 연구에서는 강원도 접경지역 지원의 당위성과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방안을 위해 경기연구원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전략”과 “트윈시티모델에 기반한 남북한 접경지역 분석과 발전 전망” 그리고 연천군의 “연천군 DMZ 활용방안 연구” 등을 통해 서북부 접경지역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접경지역 관련 유엔사 규정과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관리 관련 연구로 한모니카의 “유엔사 규정과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관리”와 문성묵의 “DMZ 관련 군사합의 이행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정전협정에 기초한 관할권과 관리권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등을 통해 유엔사의 규정들과 종류 그리고 유엔사의 관할 범위 및 권한 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현재 남측 접경지역의 현황과 발전상황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소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방안 모색을 위하여 북한 접경지역의 특징과 현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3. 남북 접경지역 개념적 검토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남북 사이에 군사분계선(MDL)을 설정하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2km 내에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 설치가 금지된 지역을 말한다.

〈그림 1〉 남한의 접경지역 범위



출처: 저자 작성.

남한의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한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파주시·연천군·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접경지역 내에는 민간인통제선(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 지정 가능)과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군사분계선 이남 25km 이내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이 있다. 2000년 7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복지향상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하여 민통선 지역으로부터 20km 이내 소재한 시군에 속한 ‘읍, 면, 동’ 행정구역으로 규정하였으나, 2011년 7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접경지역 범위를 ‘읍, 면, 동’에서 ‘시, 군’으로 확장하였다.<sup>2)</sup>

북한에서 접경지역은 ‘전연<sup>3)</sup>’, ‘최전연’, ‘분계선’, ‘연선<sup>4)</sup>’ 지역으로

2) 2008년 유엔인구기금(UNFPA) 북경세미나에서 북한 중앙통계국은 북한 인구 현황 발표하였으며, 그 당시 북한 접경지역 인구가 남한 접경지역 인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남한은 2011년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접경지역 거주 인구도 확대되었다.

3) “전방의 맨 앞자리 또는 적과 접경하고 있는 지대.” 『조선말 대사전』.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ckodic> (검색일 : 2021/7/20).

4) “일정한 경계선을 따라 그 옆에 길게 위치하여 있는 곳.” 『조선말 대사전』.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ckodic> (검색일 : 2021/7/20).

표현하며, 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방의 맨 앞 진지로 정의한다. 그 범위는 ‘분계연선지구’ 또는 ‘분계연선지역’의 표현으로 시군 전역을 지칭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2020/2/29) 최근 2020년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비상방역법 제정(2020년 8월)하고 국경과 해안연선지역의 바다출입질서를 강조하면서 국경연선 1-2km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짐승 등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고 사격을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sup>5)</sup>

남한은 접경지역 특별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통해 접경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북한은 공개된 전연지대 관련법은 없으나 2020년 코로나19 이후 엄격한 접경지역 통제와 비상방역법(2020년 제정)을 통해 전연지대를 관리하고 있다.

남북한 접경지역 개념적 정의 관련 유사점으로 정전협정 제1조 1항을 통해 MDL을 기준으로 2km 내 비무장지대 설정과 남북한 DMZ와 잇달아 있는 시군을 접경지역 및 분계연선지대로 지역을 구분하였다. 차이점으로 남한은 접경지역 특별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통해 접경지역 민간인 통제 및 지역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북한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전연지대 관련법은 없으나 2020년 코로나19 이후 비상방역법 등을 통해 엄격한 접경지역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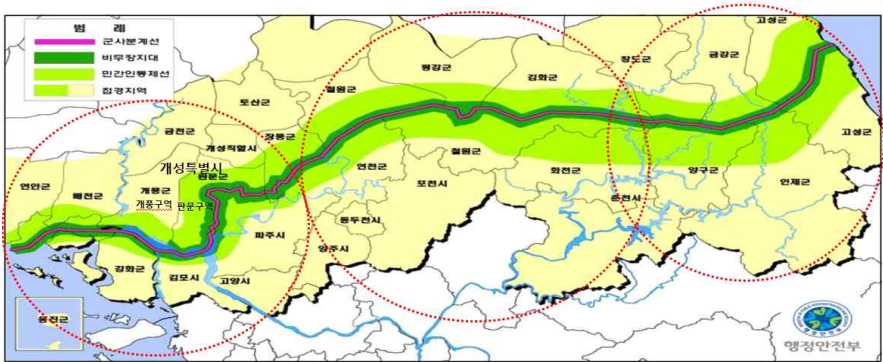
## II. 북한 접경지역 현황: 지역행정 및 경제 현황

본 연구에서 북한 접경지역 현황 분석에 있어 서부, 중부, 동부로 지역을 구분하고 서부 지역은 연안군, 배천군, 개성시(개풍구역, 판문구역), 중부 지역은 장풍군,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동부 지역은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으로 한다. 이 같은 지역 분류는 각 지역별 나타나는 산업별 특징을 바탕으로 구분하였다.

5) “국경연선(지역) 1-2km 안에 들어서는 경우 사람이나 짐승 등 모든 목표물에 대해 경고하지 않고 이유를 불문하고 사격을 한다.” 『SPN 서울평양뉴스』,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32> (검색일: 2020/8/27).

각 지역별 행정(인구, 면적, 범위)과 교통(철도, 도로)은 각 지역 발전 척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 기후와 재해현황은 각 지역별 산업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림 2〉 남북한 접경지역



출처: “저자 재가공.” 행정안전부 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 육성-』(행정안전부, 2011), p. 3.

### 1. 서부 지역

#### 1) 지역행정 현황 : 개성시를 중심으로 발전

북한 서부 접경지역 황해남도 연안군, 배천군, 개성시는 남한 인천 옹진군,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를 마주하고 있다. 북한 서부 접경지역 총인구수는 627,110명으로 총인구수 대비 2.68%이며, 면적은 1,396.27km<sup>2</sup>으로 총 122,762km<sup>2</sup> 대비 1.13%의 면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성시는 2019년 황해북도에서 분리되어 개성시로 승격하였다. 2020년 4월<sup>6)</sup> 개성시 내 2구역과 27동 3리로 분리되었다. 기존 황해북도 개성시에서 개성시로 승격되면서 나선시 및 남포시와 유사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6) “두별농사면적 확대.” 기사를 통해 개풍구역 및 판문구역 첫 언급. 『노동신문』 2020/4/1.



〈표 1〉 서부지역 행정 현황

구분	인구(명)			면적(km <sup>2</sup> )	기후 (° c, mm)			
	총인구수	남자	여자		고온	저온	강수량	
기준 <sup>7)</sup>	23,349,859	11,059,489	12,290,370	122,762	8월	1월	연간	
개성시	판문구역	308,440	146,145	162,295	441.86	24.5	-4.2	1197.1
	개풍구역							
황해남도	연안군	158,845	75,005	83,840	479.37	24.5	-4.2	1197.1
	배천군	159,825	75,598	84,227				
총계		627,110	296,748	330,362	1,396.27	24.5	-4.2	1197.1
		2.68%			1.13%			

출처: “저자 재작성.” 통계청,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검색일: 2021/05/30.)

서부 접경지역의 교통인프라는 개성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고속도로(24m, 4차선), 1급 도로는 개성시에만 있었으며, 연안군은 2급 도로 및 3급 도로만 있다. 철도는 북한 전체 접경지역 중 서부지역이 가장 발달한 상태이며, 개성시를 중심으로 평양과 연결된 간선철도와 서부 해주와 연결된 배천선이 있다.

서부 접경지역 기후는 개성시를 중심으로 산출하였으며, 연 평균 기온 11도, 가장 더운 8월 평균 기온은 24.5도, 가장 추운 1월 평균 기온은 -4.2도이다. 연간 강수량은 1197.1mm이며, 7월에 장마가 지속되어 7월 평균 368mm 강수량을 기록하였다.<sup>8)</sup> 지난 5년간 서부 지역 자연 재해 현황으로,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가뭄 및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했으며, 2018년 8월 23일부터 25일 사이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으로 인하여 연안군, 배천군, 개성시에 인명피해 및 이재민이 발생했다. 2020년 태풍 8호(BAVI)와 장마로 인하여 개성시의 주요 살림집과 공공건물 등이 침수되고 파손되었다. 2020년 서부 지역은 2019년 대비 659.1mm

7) “북한 2008년 인구 기준 총인구수는 23,349,859명이며, 2020년 인구 추정 총인구수는 25,368,000명 이다.” 통계청(KOSIS).

8)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기상청 자료 평균 기록.” [https://www.weather.go.kr/weather/climate/average\\_north.jsp?pg=23&do=08&si=1](https://www.weather.go.kr/weather/climate/average_north.jsp?pg=23&do=08&si=1) 『기상청』 (검색일: 2021/6/30).

나 더 많은 1,651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매년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방 쌓기, 나무 심기, 배수로 정비하기 등을 통해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학적 특징으로 매년 많은 양의 비가 서부 접경지역에 내리고 매년 유사한 수해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2) 지역경제 현황 : 경공업, 수산업, 농업, 관광서비스업 발전

서부 접경지역은 중부, 동부 접경지역보다 높은 행정 수준과 교통인프라 그리고 낮은 강수량으로 인하여 풍천협동농장, 오현협동농장, 정촌협동농장, 발산협동농장 등의 농업 발달과 서부 해안가의 제염소(연백제염소)<sup>9)</sup>가 발달하였다. 그리고 평양직할시와 근접성과 개성공업지구 등의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주요 경공업 공장들과 개성고려인삼공장<sup>10)</sup>, 개성방직공장 등이 발전하였다. 이외에도 박연폭포명승지, 왕건릉, 경덕궁, 개성백화점과 인민병원, 정전협정조인장 등을 연계한 관광<sup>11)</sup>, 숙박, 요식업 산업도 발전<sup>12)</sup>하고 있다.

〈표 2〉 서부지역 산업 현황

		연안군	배천군	개성시
경공업	기공		배천식료공장	
	식료	연안식료공장	-	개성종합식료공장, 판문인삼가공공장, 개성고려인삼공장
	섬유 신발	-	-	자남산수출피복공장, 개성방직공장
	공예	연안초물생산협동조합	-	개공초물공장, 개성사기제품공장

9) “조선의 서해안일대에서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 『조선중앙통신』 2016/6/14.

10) “천연기능성화장품개발을 기업전략으로 설정.” 『조선중앙통신』 2020/6/24.: “개성지방의 특산음식들을 성의껏 봉사-개성고려인삼특산물식당에서-.” 『조선중앙통신』 2021/7/29.

11) “관광자원이 풍부한 조선의 주요관광지-개성.” 『조선중앙통신』 2018/8/21.

12) “조선의 오늘 관광상품 설명 관련하여, 개성 판문점, 고려박물관, 개성고려인삼기념품상점, 왕건왕릉 등 투어 코스가 있다.” 『조선의 오늘』. <https://dprktoday.com/tourist/107> (검색일: 2021/7/20).

		연안군	배천군	개성시
	기타	-	-	개성고려인삼주공장, 개성수지일용품공장
입공업	광업	정촌광산	봉랑광산, 복금갱	해선석회석광산, 개풍규석광산
농축산수산업	농업	풍천, 오현, 정촌, 발산 협동농장	오봉협동농장	평화, 의포, 삼거, 박연, 해선협동농장
	수산업	연백제염소	배천메기공장	
서비스업	관광의료	-	-	개성백화점, 개성관광, 인민병원, 정전협정조인장
	숙박, 요식	-	-	개성민숙여관, 자남산여관, 통일관
전자	전자	-	-	개성 축전지공장

출처: 통일연구원 이상신 외, 『남북접경지역 교류협력 발전방안(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 pp. 56-57.

## 2. 중부 지역

### 1) 지역행정 현황 : 평강군을 중심으로 발전

북한 중부 접경지역 황해북도 장풍군, 강원도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은 남한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과 마주하고 있다. 북한 중부 접경지역 총인구수는 278,488명으로 총인구수 대비 1.19%이며, 면적은 2,655km<sup>2</sup>으로 총면적 대비 2.16%의 면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부 접경지역 중 평강군의 총인구수가 장풍군, 철원군, 김화군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중부 접경지역의 교통인프라는 평강군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중부 접경지역 장풍군,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에는 고속도로가 없으며, 1급 도로는 평강-김화 사이에 있다. 평강군을 제외한 중부 접경지역에 연결된 철도가 없으며, 평강군에만 ‘고원-평강’간 간선철도가 있다. 중부 접경지역은 전체 접경지역 중 가장 열악한 교통인프라 시설을 가지고 있다.

〈표 3〉 중부지역 행정 현황

구분	인구(명)			면적(km <sup>2</sup> )	기후 (° c, mm)		
	총인구수	남자	여자		고온	저온	강수량
기준	23,349,859	11,059,489	12,290,370	122,762	8월	1월	연간
황해북도	장풍군	69,104	32,991	36,113	22.7	-7.7	1251.1
	철원군	62,418	29,483	32,935			
강원도	평강군	90,425	42,910	47,515			
	김화군	56,541	26,710	29,831			
총계	278,488	132,094	146,394	2,655			
	1.19%			2.16%			

출처: “저자 재작성”, 통계청,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검색일: 2021/05/30).

중부지역 기후는 평강군을 중심으로 산출하였으며, 연 평균 기온 8.8도, 가장 더운 8월 평균 기온은 22.7도, 가장 추운 1월 평균 기온은 -7.7도이다. 연간 강수량은 1251.1mm이며, 7월에 장마가 지속되어 7월 평균 369.7mm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지난 5년간 중부 지역 자연재해 현황으로, 2017년 오랜기간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뭄피해 시찰을 하였으며,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19년 태풍 5호 ‘다나스’와 13호 ‘링링’가 중부 접경지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2020년 태풍 8호(BAVI)와 장마로 인하여 주요 중부지역은 2019년 대비 1,157.5mm나 더 많은 1,938.3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황해북도 장풍군과 강원도 김화군, 철원군의 주요 살림집과 공공건물, 도로, 다리 등이 침수되고 파손되었다. 이 같은 자연 재해피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정은은 황해북도와 강원도 태풍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시하였으며,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방문(노동신문 2020/10/2)하여 현지도 하였다. 최고지도자 재해복구 지시 이후 장풍군 및 재령군에 살림집 건설, 김화군에 1,000여세대 살림집 건설, 철원군에 1,670세대 살림집이 건설되었으며, 반복되는 재해 예방을 위해 고지대 주택 건설 및 집터를 지면보다 높게 하여 건설하였다.

## 2) 지역경제 현황 : 광업, 축산업 발전

중부 접경지역은 서부, 동부 접경지역보다 높은 산림 비중과 낮은 온 그리고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하여 경공업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반면에, 광업과 축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전하였다. 특히, 주요 광산에서 석재와 망간광과 망간포, 알루미늄 생산용 원광석<sup>13)</sup>, 금속, 유리공업의 원료인 형석 등을 생산하고 평강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 핵심 축산업 정책(‘풀을 고기로 바꾸자’)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포군-이천군-평강군<sup>14)</sup>을 잇는 세포지구 고원조성 공사가 진행되었다. 2021년 현재 세포지구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가축을 사육하고 축산물 가공식품 공장을 건설하여 축산 제품생산까지 연계하고 있다(이동걸 외 2020).

〈표 4〉 중부지역 산업 현황

		장풍군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건설업	건설	-	-	평강군민발전소 건설 중(2021년 현재)	-
화학공업	화학	-	-	평강제약공장	김화제약공장
경공업	가공	-	철원종이공장	-	-
	식료	장풍식료가공공장	-	평강식료공장, 평강고기가공공장	-
	섬유	장풍직물공장	-	평강가죽이김공장	-
임업	광업	장풍도시간철산업소, 장풍석재광산	망간광과 망간포	복진산·평강광산, 평강시멘트공장	창도광산
농축산 수산업	농업	장풍군·대덕산협동농장	마방협동농장	-	-
	축산	-	-	세포지구	-
서비스업	수리	-	-	평강트랙터수리공장	-

출처: 통일연구원 이상진 외, 『남북접경지역 교류협력 발전방안(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 pp. 64-65.

13) “알루미늄 생산용 원광석의 하석으로 평강 복진산 광산에서 생산.”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search/search.do?eicode=S\\_336702&query=%EB%B6%80%EC%82%B0%EC%95%8C%EB%A3%A8%EB%AF%B8%EB%82%98%EA%B3%B5%EC%9E%A5](https://nkinfo.unikorea.go.kr/nkp/search/search.do?eicode=S_336702&query=%EB%B6%80%EC%82%B0%EC%95%8C%EB%A3%A8%EB%AF%B8%EB%82%98%EA%B3%B5%EC%9E%A5) (검색일 : 2021/6/24).

14) “거창한 전변의 새 역사를 펼칠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나리.” 『노동신문』 2020/12/4.

3. 동부 지역 현황

1) 지역행정 현황 : 고성군을 중심으로 발전

북한 동부 접경지역 강원도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은 남한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주하고 있다. 북한 동부 접경지역 총인구수는 278,488명으로 총인구수 대비 1.19%이며, 면적은 2,655km<sup>2</sup>으로 총면적 대비 2.16%의 면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부 접경지역 중 고성군의 총인구수가 창도군, 금강군과 비교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부, 중부 접경지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서부(개성시, 연안군, 배천군) 접경지역 인구의 약 26% 수준이다.

〈표 5〉 동부지역 행정 현황

구분	인구(명)			면적(km <sup>2</sup> )	기후 (° c, mm)			
	총인구수	남자	여자		고온	저온	강수량	
기준	23,349,859	11,059,489	12,290,370	122,762	8월	1월	연간	
강원도	창도군	51,319	24,268	27,051	370.36	23.7	-0.9	1519.9
	금강군	54,211	25,678	28,533	1,472.82			
	고성군	61,277	28,939	32,338	858.65			
총계	166,807	78,885	87,922	2,701.83				
	0.71%			2.2%				

출처: 저자 재작성. 통계청,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검색일: 2021/05/30.).

동부 접경지역의 교통인프라는 고성군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동부 접경지역 창도군과 금강군에는 고속도로와 1급도로 그리고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고성군에는 고속도로(24m, 4차선)가 평양직할시부터 원산, 원산에서 통천, 고성, 온정리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1급 도로도 온정리부터 원산, 고성, 온정리까지 연결되어 있다. 철도는 금강산청년선 간선철도가 안변역에서 감호역까지 연결되어 있다. 고성군은 장전항과 금강산 그리고 원산갈마지구 등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인프라

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부 접경지역 기후는 북한 고성군을 중심으로 산출하였으며, 연 평균 기온 12도, 가장 더운 8월 평균 기온은 23.7도, 가장 추운 1월 평균 기온은 -0.9도이다. 연간 강수량은 1519.9mm이며, 서부, 중부 접경지역과 달리 8월에 장마가 지속되어 8월 평균 303.3mm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지난 5년간 동부 지역 자연재해 현황으로, 2019년 태풍 13호 ‘다나스’로 인하여 동해 해안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함경남도 210여동 460세대 살림집이 파괴되고 농경지가 침수 및 매몰되었다.

2020년 태풍 8호(BAVI)와 장마로 인하여 주요 동부지역은 2019년 대비 1,562.3mm나 더 많은 2,483.9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강원도 창도군과 금강군의 주요 살림집과 공공건물, 도로, 다리 등이 침수되고 파손되었다. 김정은은 이 같은 자연재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북한 인민군부대들, 사회안전성려단, 216사단의 군인들을 피해현장에 파견하여 피해복구와 이재민들의 살림집을 건설하였다.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창도군과 금강군과 고성군의 기후의 차이가 있으며, 고성군에 막대한 태풍피해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창도군과 금강군의 재해피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지역경제 현황 : 관광업, 광업, 채소·과수업, 생태산업 발전

동부 접경지역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행정(인구수), 교통, 기후가 상이하여, 해안 지역의 관광업 발달과 내륙 지역의 생태관리와 채소업, 과수업이 발달하였다. 해안 지역의 고성군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기존 남북 간 금강산관광협력으로 관광업이 발전하였으며, 2019년 김정은의 현지시찰 이후 자체적으로 금강산지구 개발계획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안 지역의 고성수산사업소, 두포수산사업소, 수산작업반, 수산분조를 통해 수산업도 지속하고 있다. 내륙 지역의 금강군에서는 최근 새땅찾기, 하천기슭에 제방 쌓기 등을 통해 100정보의 새땅, 수십정보의 논을 만들어<sup>15)</sup> 발농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강산지구를 세계생물권보호구역으로

15) “세포지구 축산기지 준공.” 『조선중앙통신』 2017/10/28.

등록하여 생태환경을 관리<sup>16)</sup>하고 있다. 창도군에서는 주요 채소 재배와 과일 등을 수확하며, 광물로 중정석(주로 페인트, 제지, 고무 및 직조 공업에서 가중제 혹은 혼합제로 흔히 사용)을 생산<sup>17)</sup> 하고 있다.

〈표 6〉 동부지역 산업 현황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
건설업	건설	-	-	고성군민발전소
화학공업	화학	창도제약공장	규소석회질소비료	유기질비료 생산
경공업	가공	-	금강초물제품공장	고성공작기계공장
	식료	창도식료품공장	금강식료공장	금강산샘물공장
	섬유	창도일용품공장	금강직물공장	고성참대일용품공장
입공업	광업	중정석 생산	신평광산- 텅스텐 생산	
농축산수산업	농업	대백협동농장		고성과수농장
	수산			영진어장, 고성바다기양식사업소, 고성수산사업소

출처: 통일연구원 이상신 외, 『남북접경지역 교류협력 발전방안(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 p. 73.

### Ⅲ. 남북한 접경지역 발전방향 모색

#### 1. 남한 접경지역 현황과 산업발전

서부 접경지역의 인천 옹진군, 강화군, 경기 김포시, 파주시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으며, 고양시, 양주시도 접경지역에 해당된다. 서부 접경지역의 총인구수는 2,271,209명으로 2021년 2월 남한 총인구수 대

16) “조선의 금강산지구 세계생물권보호구로 새로 등록.” 『조선중앙통신』 2018/7/31.

17) “조선에서 광물생산 장성, 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추동.” 『조선중앙통신』 2016/3/25.



비(51,829,023명) 4.3%이며, 총면적은 2,112.48km<sup>2</sup>으로 남한 총면적 100,412.60km<sup>2</sup> 대비 2.1% 수준이다<sup>18)</sup>. 교통인프라는 전체 접경지역 중 서부접경지역이 가장 발달되었으며,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각 접경지역 간 교통 연결이 잘 되어 있다. 특히 파주시, 김포시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연결되어 지역 산업발전과 거주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후 및 재해 관련<sup>19)</sup> 파주시 기준 연 평균 기온 11.24도, 가장 더운 8월 평균 기온 25.02도, 가장 추운 1월 평균 기온은 -4.2도 이다. 연간 강수량은 1003.86mm이며, 7월에 장마가 지속되어 7월 평균 363.78mm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지난 5년간 서부 접경 지역 자연재해 현황으로 강화군과 파주시, 양주시가 피해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도서지역은 옹진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높지 않았다.

서부 접경지역 산업발전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토지이용규제가 보다 완화된 특징을 바탕으로 공업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공업지구 토지 이용은 제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제조업의 발전은 주변 도 소매업과 운수업 등의 동반 성장을 이끌었다. 서부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주요 접경지역에서는 관광업 관련 숙박음식점이 활성화 되었다.

중부 접경지역의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이 북한과 마주하고 있으며,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도 접경지역에 해당된다. 중부 접경지역의 총인구수는 668,286명으로 남한 총인구수 대비 1.2%이며, 총면적은 4,513.37km<sup>2</sup>으로 남한 총면적 대비 4.49% 수준이다. 교통인프라는 경기도 연천군과 동두천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도로 및 철도의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강원도는 춘천시를 중심으로 교통인프라가 발전하고 있다. 기후 및 재해 관련 철원군 기준 연 평균 기온 11.28도,

18) “2021년 2월 기준 남한 국토전체면적 및 전체 인구 현황.” 『통계청』,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 (검색일 : 2021/5/20).

19) “자연재해현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상황통계 자료 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치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검색일 : 2021/5/30).

가장 더운 8월 평균 기온 24.34도, 가장 추운 1월 평균 기온은 -6.36도 이다. 연간 강수량은 1010.12mm이며, 7월에 장마가 지속되어 7월 평균 381.42mm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지난 5년간 중부 접경 지역 자연재해 현황으로 연천군, 포천시, 철원군이 피해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 중인 동두천시와 춘천시는 자연재해 피해가 높지 않았다.

중부 접경지역 산업발전은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춘천시를 중심으로 도매·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발전하였으며,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음식점업과 도매·소매업이 발전하였다.<sup>20)</sup>

동부 접경지역의 강원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은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다. 동부 접경지역의 총인구수는 115,386명으로 남한 총인구수 대비 0.2%이며, 총면적은 4,292.33km<sup>2</sup>으로 남한 총면적 대비 4.27% 수준이다. 교통인프라는 전체 접경지역 중 가장 열악하다. 특히 춘천에서 화천, 양구, 인제, 고성으로 이어지는 지역에는 철도가 없으며, 국도와 지방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었다. 동부지역은 열악한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동서평화 고속도로(강화-간성 고속도로, 강화군-연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를 계획 중이다. 기후 및 재해 관련 고성군 기준 연 평균 기온 12.7도, 가장 더운 8월 평균 기온 24.38도, 가장 추운 1월 평균 기온은 0.2도 이다. 연간 강수량은 1315.76mm이며, 서부, 중부 접경지역과 달리 8월에 장마가 지속되어 8월 평균 359.02mm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지난 5년간 중부 접경 지역 자연재해 현황으로 양구군과 인제군에서는 자연재해가 적게 나타났으며, 고성군에서는 호우 및 태풍 등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동부 접경지역 산업발전은 높은 농림 토지이용규제로 인하여 생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더불어 보존된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주요 관광업이 활성화 되었다. 그리고 비교적 해안가와 근접한 인제군과 고성군에 비하여 양구군의 산업발전은 다소 저조하게 나타났다.

20)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높지 않고 대형마트가 적기 때문에 소규모 도매업과 소매업이 발달하였다.

〈표 7〉 접경지역 상위 5개 사업자 수 조사

구분	전체 사업자수 (곳)	상위 5개 사업자 수 (곳)					합 계	
		숙박 음식점	도매 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제조업	운수업 창고업		
서부	강화군	5,745	1,875	1,277	588	429	359	4,528
	웅진군	1,984	1019	287	117	69	94	1,586
	파주시	30,369	5,349	6,438	2,649	5,810	2,933	23,179
	고양시	69,225	10,434	18,468	7,234	5,858	7,244	49,238
	김포시	31,385	4,299	6,467	2,268	9,291	2,397	24,722
	양주시	17,558	2,630	3,782	1,519	4,276	1,665	13,872
	합 계	156,266	25,606	36,719	14,375	25,733	14,692	117,125
중부	연천군	3,659	895	796	436	376	204	2,707
	동두천 시	6,006	1,385	1,513	817	380	614	4,709
	포천시	17,997	3,218	3,525	1,289	5,897	1,314	15,243
	철원군	3,821	1,060	867	435	238	248	2,848
	춘천시	22,997	5,628	5,039	2,863	1,249	1,923	16,702
	화천군	2,149	694	454	219	126	95	1,588
	합 계	56,629	12,880	12,194	6,059	8,266	4,398	43,797
동부	양구군	2,022	633	392	200	133	86	1,444
	인제군	3,324	1,198	771	283	193	135	2,580
	고성군	2,971	1,105	616	245	226	123	2,315
	합 계	8,317	2,936	1,779	728	552	344	6,339
총 합	221,212	41,422	50,692	21,162	34,551	19,434	167,261	

출처: 2021년 산업현황 통계청 자료(산출 기준 2018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검색일: 2021/07/30\).](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검색일: 2021/07/30).)

## 2. 남한 접경지역 발전계획

2019년 2월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3.2조원을 투자하여 225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행정안전부 2019). 주요 사업으로 첫째,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이다. 주요 세부 목표로 DMZ 인근에 도보여행길 조성 및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 한탄강 주변 생태체험공간 조성, 양구 펀치볼 지역 전망대 조성, 군 폐 막사 등을 병영체험공간으로 활용이다. 둘째, SOC 확충 및 여건

개선이다. 주요 세부 목표로 권역별 거점에 민군 활용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 LPG(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및 공급관 설치이다. 셋째, 균형발전이다. 주요 세부 목표로 접경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구도심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역 내 경제 활성화이다. 넷째,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이다. 주요 세부 목표로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등 교통인프라 구축, 남북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문화 교류센터 건립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표 8〉 지자체별 주요 사업 현황

지자체	사업명	기간	2020년 예산 집행	
광역시	통일을 여는길-(DMZ 평화의 길)	'19~'22	진행 중	
광역시	복합커뮤니티센터-(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 조성)	'19~'25	진행 중	
광역시	LPG 저장시설-(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LPG)	'21~'30	진행 중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19~'24	진행 중	
	교동 동서평화도로	'20~'25	-	
경기	고양	청년 내일꿈 제작소	'19~'23	진행 중
	파주	울곡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	'19~'24	진행 중
	김포	포구 문화의 거리	'20~'25	-
	양주	곤충테마파크	'20~'24	-
	동두천	양주 동두천 상생플랫폼-(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	'20~'22	진행 중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17~'20	진행 중
	연천	은통산업단지(BIX)	'16~'20	진행 중
강원	춘천	캠핑페이지 시민공원 음악분수	'20~'22	진행 중
	철원	통일문화 교류센터-(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20~'22	진행 중
	화천	상가 밀집지역 환경개선	'20~'22	진행 중
	양구	편치볼 하늘길(금강으로 가는 DMZ 하늘길 조성)	'20~'24	진행 중
	인제	폐막사를 활용한 병영체험공간	'20~'22	-
	고성	사계절 해양해중 관광거점-(해양 및 수상레저시설 조성)	'17~'21	진행 중

출처: 『행정안전부』, 2019.2.8.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661](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661)> (검색일: 2021/6/30).

### 3. 남북한 접경지역 발전방향 모색

남북한 서부 접경지역은 경공업과 수산업, 농업, 관광업이 발전하였다. 남한의 경우 주요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여 서부지역에 많은 공업지역을 허용하고 경공업을 육성하였으며, 기후 입지조건으로 파주와 철원의 농업도 육성되었다. 그리고 옹진군, 강화군을 중심으로 수산업과 관광업이 발전하였다. 북한도 개성공업지구를 바탕으로 개성시 내 주요 가공공장과 방직공장들이 발전하였으며, 서부지역은 양호한 기후 입지조건으로 협동농장이 육성되었다. 그리고 개성시 판문점 및 고려박물관 등을 활용하여 관광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남북한 서부 접경지역은 경공업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개성공업지구 재개를 통한 남북 경공업 교류와 중국 다롄항과 해주 그리고 개성시, 인천항으로 연결되는 무역과 임가공 산업 교류협력이 재개되어야 한다.

남북한 중부 접경지역은 생태관리를 중심으로 산업발전이 제한적이었으며, 축산업, 목축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전하였다. 남한 중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농림지역의 높은 규제로 인하여 산업발전은 제한적이며, 제한된 지역발전으로 인한 축산업<sup>21)</sup>과 생태산업, 생태관광업이 발전하였으며, 광업 등과 같은 지하자원은 군사규제로 인하여 개발되지 못하였다. 북한 중부 접경지역은 평강군을 중심으로 세포지구까지 연결된 목축업과 축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 협동농장 산업과 생태관리가 지속되고 광업 생산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남북은 생태 관련 2차례의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이후 북한 개성시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과 남측전문가를 파견하여 왕건 왕릉 주변 소나무림 공동방제 사업을 실시하였다.

21)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 중 연천군(5,167,593마리), 철원군(4,653,814마리), 포천시(9,707,992마리)에서 축산업이 가장 활성화 되었으며, 다음으로 김포시(3,909,480마리), 파주시(2,607,116마리), 화천군(1,345,866마리), 춘천시(1,347,111마리), 고성군(178,087마리) 등이 축산업을 장려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https://uni.agrix.go.kr/doc/s7/biOlap/fixType.do?reportId=report17> (검색일: 2021/7/20).

중부지역의 축산업, 목축업, 방역·방제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이후 세포지구(세포군-이천군-평강군) 개발사업으로 축산업과 목축업을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남한도 연천군-포천시-철원군의 축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 되었다. 따라서 향후 중부 접경지역에서는 남북 간 축산업 교류협력이 필요하다.<sup>22)</sup> 더불어 축산업 주변에는 늘 각종 병충해 및 바이러스 등이 발생하며, 남북 간 축산업+방역·방제 협력도 필요하다.

남북한 동부 접경지역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남북관광협력사업이 발전하였다. 남한은 최근 북한철도와 연결된 고성군 제진역을 ‘통일로 가는 평화 열차 체험장’으로 조성하고 북한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상품을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금강산지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지리적 한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북한 관광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동부 접경지역은 생태산업 및 관광산업 교류협력이다. 전세계적으로 환경 기후 관련 산업이 새로운 미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도 탄소 중립을 위한 환경문제를 위하여 치산치수 정책을 제시하고 환경보호법을 추가 보충하였으며, 남한도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산림비중이 높은 동부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산림 및 생태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 관광 교류협력 산업 재개와 남북 역사문화 탐방 사업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종교를 바탕으로 금강산 역사 탐방 관광 교류 산업(고성군 불교 사찰 복원 및 교류 사업 등) 등과 같은 모색이 필요하다. 나아가 금강산 관광협력 사업을 금강산을 중심으로 주변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지역관광상품 개발 모색도 필요하다.

22) 접경지역 외 지자체에서 접경지역 내 위탁사육 등의 교류협력 모색도 필요하다.

#### IV. 결론

남북한 접경지역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 접경지역 현황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북한에서는 남한과 유사하게 군사분계선과 잇닿아 있는 지역을 전연지대, 최전연지대, 연선지대 등의 표현으로 접경지역을 지칭하였다. 그리고 4개의 군단에서 접경지역을 관리하고 민간인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 접경지역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인구, 면적, 범위)과 교통, 기후 및 재해를 확인한 결과, 접경지역은 특징적으로 서부, 중부, 동부로 분류해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첫째, 서부 접경지역이다. 서부 접경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바탕의 경공업, 왕건릉 등 관광업, 배천군의 농업, 연안군이 수산업(연백제염소) 등이 발전하였다. 서부 접경지역은 다른 접경지역보다 발달된 교통인프라 수준과 평양과 근접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이 진행되었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이다. 중부 접경지역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집중적으로 진행중인 세포지구 축산업 정책 발전이 두드러졌다. 세포군-이천군-평강군으로 이어지는 축산업과 목축업은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이다. 동부 접경지역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관광업과 수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내륙지역은 생태산업, 광업 등이 발전하였다.

향후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방안 모색으로 각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교류협력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부 접경지역은 기존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경공업 교류협력과 관광 및 스포츠 산업 교류협력 제시가 필요하다. 서부 접경지역 모두 물류수송이 용이한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공업과 교통인프라가 발전하였다. 이 같은 장점을 활용한 기존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장기간 지속가능한 탈정치적 속성의 교류를 위해서 접경지역 내 국가대표 스포츠 훈련장을 건축하여 향

후 남북단일팀 합숙 숙소 또는 훈련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은 남북 모두 축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축산업과 목축업이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 접경지역 또는 기타 지자체의 투자로 중부 접경지역 내 축산업 기지를 조성하여 남북 공동 관리 또는 북측에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축산업과 동시에 협력이 필요한 보건협력도 진행할 수 있다. 북한도 접경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부지역 축산업 협력과 더불어 남북 보건협력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은 기존 금강산관광협력 재개를 통한 남북 관광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의 금강산 시찰 이후 금강산 철거를 지시하고 북한식 개발 계획을 제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간 관광협력 사업이 재개되어야 활성화 가능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미국 및 UN 안보리 설득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남북 산림 및 생태 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 모두 국제환경과 기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탄소중립을 위해 북한 치산치수 정책 및 환경보호법 수정, 남한은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동부 접경지역의 백두대간 지형적 특징을 활용한 남북 환경, 산림 협력 및 산불예방 협력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나 협력체 구성 등을 남북 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접경지역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서부, 중부, 동부로 특징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변화를 추적하다 보니 서부를 다시 해주지역과 개성지역으로 특징화할 수 있으며, 동부를 고성군 지역과 창도·금강군 지역으로 특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세밀한 접경지역 현황 분석과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강민조 외. 2018.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I』. 세종: 국토연구원.
- 강원연구원 편. 2020. 『접경지역 경제·사회·문화구조 분석』. 강원: 강원연구원.
- 기상청. 2021.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기상청 자료 평균 기록.” [http://www.weather.go.kr/weather/climate/average\\_north.jsp?pg=23&do=08&si=1](http://www.weather.go.kr/weather/climate/average_north.jsp?pg=23&do=08&si=1). (검색일: 2021/6/30).
- 김일한. 2016. “위험한 평화와 공존하기 : 강원도 민통선 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 『평화학연구』17권 1호.
- 김창환·이태희. 2013.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지리지리학회』 제23권 제1호.
- 이동걸외. 2020. 『북한의 산업 3권』 서울: KDB 산업은행.
- 노동신문. 2020. “두별농사면적 확대.” 기사를 통해 개풍구역 및 판문구역 첫 언급. 『노동신문』(4월1일).
- 노동신문. 2020. 『노동신문』(10월 2일).
- 노동신문. 2020. “거창한 전변의 새 역사를 펼칠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나리.” 『노동신문』(12월4일).
- 조선의 오늘. 2021. “조선의 오늘 관광상품 설명 관련하여, 개성 판문점. 고려박물관, 개성고려인삼기념품상점, 왕건왕릉 등 투어 코스가 있다.” <https://dprktoday.com/tourist/107> (검색일: 2021/7/20).
- 조선중앙통신. 2016. “조선에서 광물생산 장성. 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추동.” 『조선중앙통신』(3월25일).
- 조선중앙통신. 2016. “조선의 서해안일대에서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 『조선중앙통신』(6월14일).
- 조선중앙통신. 2017. “세포지구 축산기지 준공.” 『조선중앙통신』(10월 28일).
- 조선중앙통신. 2018. “조선의 금강산지구 세계생물권보호구로 새로 등록.” 『조선중앙통신』(7월31일).
- 조선중앙통신. 2018. “관광자원이 풍부한 조선의 주요관광지-개성.” 『조선중앙통신』(8월21일).
- 조선중앙통신. 2019. “개성지방의 특산음식들을 성의껏 봉사-개성고려인삼특산물식당에서-.” 『조선중앙통신』(7월29일).
- 조선중앙통신. 2020. “국경접경, 분계연선지역들 표현에서 개성시 전체를 설명하고 있음.” 『조선중앙통신』(2월 29일).
- 조선중앙통신. 2020. “천연기능성화장품개발을 기업전략으로 설정.” 『조선중앙통신』(6월24일).
- 이상신 외. 2021. 『남북접경지역 교류협력 발전 연구(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SPN 서울평양뉴스. 2020. “국경연선(지역) 1-2km 안에 들어서는 경우

사람이나 짐승 등 모든 목표물에 대해 경고하지 않고 이유를 불문하고 사격을 한다.” 『SPN 서울평양뉴스』(8월27일).

- 국민재난안전포털. 2021. “자연재해현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 상황통계 자료 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치 자료를 활용하였다.”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검색일: 2021/5/30).
-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 중 연천군(5,167,593마리), 철원군(4,653,814마리), 포천시(9,707,992마리)에서 축산업이 가장 활성화 되었으며, 다음으로 김포시(3,909,480마리), 파주시(2,607,116마리), 화천군(1,345,866마리), 춘천시(1,347,111마리), 고성군(178,087마리) 등이 축산업을 장려하였다.” <https://uni.agrix.go.kr/docs7/biOlap/fixType.do?reportId=report17> (검색일 : 2021/7/20).
- 조선말 대사전 편. 2021. “전방의 맨 앞자리 또는 적과 접경하고 있는 지대.”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ckodic> (검색일 : 2021/7/20).
- 조선말 대사전 편. 2021. “일정한 경계선을 따라 그옆에 길게 위치하여 있는 곳.” 『조선말 대사전』.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ckodic> (검색일 : 2021/7/20).
- 통계청. 2021. “2021년 2월 기준 국토전체면적 및 전체 인구 현황.”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 (검색일: 2021/5/20).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021. “알루미늄 생산용 원광석의 하석으로 평강 복진산 광산에서 생산.” [https://nkinfo.unikorea.go.kr/nkp/search/search.do?eicode=S\\_336702&query=%EB%B6%80%EC%82%B0%EC%95%8C%EB%A3%A8%EB%AF%B8%EB%82%98%EA%B3%B5%EC%9E%A5](https://nkinfo.unikorea.go.kr/nkp/search/search.do?eicode=S_336702&query=%EB%B6%80%EC%82%B0%EC%95%8C%EB%A3%A8%EB%AF%B8%EB%82%98%EA%B3%B5%EC%9E%A5) (검색일 : 2021/6/24).
- 통계청. 2021. “북한 2008년 인구 기준 총인구수는 23,349,859명이며, 2020년 인구 추정 총인구수는 25,368,000명 이다.” <https://kosis.kr/bukhan/index.jsp> (검색일: 2021/6/30).
- 행정안전부. 2019.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661](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661) (검색일: 2019/2/8).

투고일 : 2021년 10월 25일 . 심사일 : 2021년 11월 26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1일

\* 허정필은 동국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는 “남북한 스포츠 교류협력과 북한의 스포츠정치: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 주요특징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관리 특징과 남북협력 방안연구” 등이 있다. 관심분야는 남북교류협력 분야이다.

## &lt;Abstract&gt;

**Exploring the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the South-North border region and the Possibility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South-North Border Region**

Jeongpil Heo  
(Dongguk Univ.)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inter-Korean border area by analyzing the situation of the border region in North Korea in more detail. As a result of checking the administration such as population, area, scope and traffic, climate and disasters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border region with North Korea, it was possible to explain the border region characteristically by classifying it into western, central, and eastern regions. At the First, it is the western border area. In the western border region, light industry based on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tourism such as Wang Geonneung, agriculture in Baecheon-gun, and fishery in Yeonbaek-gun developed. In the western border region, industrial development in various fields was progressed due to the level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ore developed than other border regions and its proximity to Pyongyang. Second, it is the central border area. In the central border region, the development of livestock farming policies in the Sepho district, which has been intensively underway since the Kim Jong-un era, was remarkable. The livestock industry and the livestock industry leading from Sephogun-Icheongun-Pyeongganggun are continuously developing under the direction of the Supreme Leader. Third, it is the eastern border area. In the eastern border region, with Mt. Geumgang as the center, tourism and fisheries were activated in the coastal region, and ecological and mining industries were developed in

the inland region. Future plans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using the inter-Korean border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western border region, it is necessary to present exchange and cooperation in light industry and tourism and sports industry by resuming the existing Kaesong Industrial Complex. Secondly, in the central border region, the livestock industry was more developed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than in other regions, and in North Korea, livestock farming and livestock farming are systematized as a policy. Third,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is possible through the resumption of the existing Mt. Kumgang tourism cooperation in the eastern border region. In reality, the Mt. Kumgang tourism project can only be activated when tourism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resumed.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ersuad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 Security Council.

**Keywords** : South Korea, North Korea, Border Areas, DMZ,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